

2023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④	2	⑤	3	③	4	③	5	③
6	⑤	7	③	8	②	9	②	10	①
11	①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③	23	③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④	29	⑤	30	④
31	①	32	③	33	④	34	②	35	①
36	⑤	37	④	38	②	39	③	40	④
41	②	42	④	43	①	44	②	45	③

해설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이제부터 먹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을 소개한 뒤,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청중에게 안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를 마무리할 때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②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③ 2문단에서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발표 대상인 먹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을 파악한다.

3문단에서 발표자는 먹의 제조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그을음 채취 단계와 반죽의 건조 단계를 나타내는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한다. 이후 청중이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먹을 반죽하는 모습을 담은 새로운 그림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앞서 제시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먹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인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1문단에서 '사진 1'을 통해 먹으로 그려진 작품들을 보여 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스마트 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동료 평가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4문단에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에 자료를 게시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먹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사진 2'를 통해 송연 먹으로 그는 선과 유연 먹으로 그는 선의 특성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3'은 농담이나 선의 표현이 물의 양으로만 조절된다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 내용을 통해 먹의 종류에 따라서도 농담이나 선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발표 내용이 '학생 3'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학생 3'이 불일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할아버지의 서예 작업을 도울 때 먹의 향기에 놀랐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② '학생 2'는 먹의 종류에 대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송연 먹으로 유명한 지역을 찾아보는 추가 활동을 계

획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먹의 제조 과정에서 향기를 내기 위한 단계가 있을 것이라 했고, '학생 2'는 송연 먹이 소나무가 많은 지역의 특산품이었을 것이라 했으므로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학생 2'는 먹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했고, '학생 3'은 농담이나 선의 표현이 먹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했으므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발화의 기능을 이해한다.

㉞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㉞에서 '학생 1'은 대화 참여자들에게 지난 수업 시간까지 같은 책을 읽었다는 공유된 상황을 환기하며, 대화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㉞의 직전 발화에서 '학생 2'는 저자가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를 새로운 현상으로 소개한 부분이 흥미로웠다고 말한다. '학생 1'은 '학생 2'가 그렇게 여기는 이유를 추론해 '학생 2'의 발화를 보충하면서 직전 발화의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다. ④ ㉞에서 '학생 1'은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에 대한 태도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대화 참여자들에게 영화를 보는 목적을 물으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⑤ ㉞에서 '학생 1'은 같은 책을 읽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느낀 점을 밝히며 소설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추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5. [출제의도] 담화의 전개를 고려하여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A]에서는 '학생 2'가 배속 재생으로 영화를 몰아 보고 친구들과 대화한 경험과, '학생 3'이 같은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감상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 경험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경험은 [B]에서 책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독서 경험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에서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에 대한 '학생 2'와 '학생 3'의 입장이 제시되나, [B]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뿐 상대방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 진술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의문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경험이 언급되고 있으나, [B]에서 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6.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가)의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감상 방법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감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는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며, (나)의 2문단에는 그 방식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있으므로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1문단에서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문화의 발생 배경으로 소개되었다. ② (가)의 '학생 3'의 마지막 발화에서 영화에 담긴 풍부한 의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4문단에서 친구들과 대화에서 화젯거리가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시되었다. ③ (가)의 '학생 2'의 마지막 발화에서 그동안 영화에서 놓친 의미가 많을 수 있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4문단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다른 방법도 수용하겠다는 다

짐으로 제시되었다. ④ (가)의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에서 영화가 사회적 교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2문단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7. [출제의도]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받은 조언을 추측한다.

<보기>에는 영화를 빠르게 보면 창작자의 의도를 간과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C]에는 대사가 없는 장면을 배속 재생이나 건너뛰기로 넘겼을 때 창작자의 의도가 간과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책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는 영화를 원래 속도로 감상하지 않아 창작자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책에서 찾아 제시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C]에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해도 줄거리 파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C]에 영화 감상의 목적에 따라 감상 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저자의 견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C]에 영화 감상에서 줄거리 파악과 창작자의 의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C]에서 영화를 배속 재생과 건너뛰기로 볼 때를 구분하여 의도가 간과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이해한다.

2문단에서 환경 오염의 하위 범주들은 설정되어 있으나, 하위 범주인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2000년과 2015년이라는 시기를 언급하고 이 시기에 의류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패스트 패션 산업이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했다. ③ 2문단에서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의 양상을 제시했다. ④ 2문단에서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⑤ 3문단에서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해결 방안을 나열했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한 양상을 파악한다.

(가)에서 의류의 과잉 생산으로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의류 산업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이지만,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한정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자료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옷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나-1)에서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의류를 많이 사서 적게 입고 버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1문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나-2)에서 천연 섬유를 혼방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천연 섬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신문 기사'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례는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내용을 생성한다.

학생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떠올린 생각은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 이외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다는 것과, 방안 실천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A]에 적절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 한다. '필요한 만큼의 옷만 구입하여 의류 폐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류 산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서술이다. 또한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곧 지구 전체가 의류 폐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는 방안 실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서술이다. 따라서 학생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떠올린 생각에 들어 있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오답풀이] ② '옷의 세탁 횟수를 줄이고, 세탁을 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을 적게 배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안 실천의 시급성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③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도 효과적일 것이다.'에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방안 실천의 시급성도 강조되어 있지 않다. ④ '중고 거래나 재활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한다면'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안 실천의 시급성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⑤ '지구는 옷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과 넘쳐나는 의류 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다.'와 '하루 빨리 옷의 사용 과정과 폐기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에는 방안 실천의 시급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제시되어 있다.

11. [출제의도] 'ㅎ'을 포함하고 있는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다.

'쌍던'은 거센소리되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쌍뎌]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읽고'는 어간 말 'ㅎ'과 어미의 첫소리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일꼬]로 발음된다. ③ '끓이다'는 어근 '끓-'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ㅎ'이 탈락하고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끄리다]로 발음된다. ④ '취하고[치카고]'는 접받침 '리'에서 'ㄱ'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하찮은[하차는]'은 'ㅎ'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⑤ '먹히다[머키다]'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나고, '끓고서[큰코서]'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각각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12. [출제의도] 'ㅎ'을 포함하고 있는 말의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④는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⑥는 'ㅈ'과 'ㅎ'이 곧바로 합쳐져 'ㅊ'으로 바뀐 것이므로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⑦는 접받침 '리'에서 'ㄱ'이 탈락하고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바뀐 것이므로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⑧는 받침 'ㅈ'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뀐 것이므로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⑨는 접받침 '피'의 'ㅍ'이 접미사 '-히-'의 'ㅎ'과 곧바로 합쳐져 '포'으로 바뀐 것이므로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한다.

'놀이터'는 어근 '놀이'와 어근 '터'로 먼저 나뉘므로

합성어이다. '놀이'는 다시 어근 '놀-'과 접미사 '-이'로 나뉜다. 따라서 '놀이터'는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집안일'은 '집안'과 '일'로 나뉘며, '집안'이 다시 '집'과 '안'으로 나뉘므로 '(어근+어근)+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② '내리막'은 '내리-'와 '-막'으로 나뉘므로 '어근+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④ '코웃음'은 '코'와 '웃음'으로 나뉘며, '웃음'이 다시 '웃-'과 '-음'으로 나뉘므로 '어근+(어근+접미사)'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⑤ '울음보'는 '울음'과 '-보'로 나뉘며, '울음'이 다시 '울-'과 '-음'으로 나뉘므로 '(어근+접미사)+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14. [출제의도] 안긴문장의 특성을 이해한다.

ㄷ의 안긴문장인 '수업이 끝나기'에는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ㄷ의 안긴문장인 '조종사가 된'에는 안은문장과 공통되는 요소인 주어 '소년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종사가'는 보어이다.

[오답풀이] ① ㄱ의 안긴문장인 '여행을 가기'에는 주어 '내가'가 생략되어 있다. ② ㄴ의 안긴문장은 '그녀가 착함'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그녀가', 안은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다. ③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 목적격 조사 '을',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쓰인다. ⑤ ㄱ의 안긴문장은 명사절, ㄷ의 안긴문장은 관형사절로 서로 종류가 다르지만, 안은문장에서 각각 체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15.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

㉠에서 '-으시-'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요'는 상대인 '점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문법적 수단인 조사 '께'와 어휘적 수단인 동사 '드리다'를 통해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에서 '모시다'는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부모님'을, '께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인 '손님들'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④ ㉢에서는 문법적 수단인 종결어미 '-니니다'를 통해 대화의 상대방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⑤ ㉣에서는 어휘적 수단인 '뵙다'를 통해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6~20] (기술) 전방욱, 「mRNA 혁명, 세계를 구한 백신」

이 글은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인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유전 물질을 접종하는 것으로, 체내 효소로부터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 리보솜에 전달하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라는 인공 외막을 전달체로 사용한다. 음전하를 띤 mRNA를 낮은 pH에서 양전하를 띤 이온화 지질로 둘러싼 후 높은 pH에서 전기적으로 중화시키면 내포 작용에 의해 엔도솜 막에 갇힌 채 세포 내로 함입된다. 그리고 세포질 내에서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되면 엔도솜에서 방출되어 mRNA가 리보솜에 전달된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바이러스는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mRNA 백신은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한다. 즉 mRNA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 감염 모두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되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mRNA 백신은 인체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게 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③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다. ④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핵 안에서 유전 정보

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 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이므로,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 백신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며, 인지질의 인산기로 이루어진 친수성 머리가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가 물려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즉 지방산은 세포질에 접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내포 작용이 발생하면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므로, 세포막은 수용체를 통해 특성의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③ 내포 작용이 발생하면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어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 ④ 세포막의 인지질은 인산기와 지방산으로 구성되므로, 친수성 물질 및 소수성 물질 모두와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⑤ 세포막은 양친매성 물질인 인지질로 구성되어 친수성 물질의 투과를 차단한다.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양이온성 지질은 체내에서 ㉢가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되지만 ㉣는 높은 pH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가 흡착되지 않는다. 즉 ㉢와 결합하면서 ㉣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가 높은 pH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와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오답풀이] ① ㉢는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므로, ㉣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로 둘러싼 채 세포 내로 진입시킨다. ② ㉢와 ㉣는 모두 음전하를 띤기 때문에 둘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③ ㉢가 리보솜에 전달하려면 세포 밖에서 ㉢와 결합하여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야 하며, 세포 안에서 ㉢와 분리되어야 리보솜을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한다. ④ ㉢는 양이온성 지질에는 흡착되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에는 흡착되지 않는데, 이는 ㉢가 음전하를 띤기 때문이다. ㉣는 수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진다.

19.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pH가 높아지면 이온화 지질이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강해진다. 그 결과 이온화 지질 내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이 증가하므로 이온화 지질 간 결합이 증가하여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

[오답풀이] ①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소수성 물질인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에탄올 역시 소수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이다. ②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통해 투입량을 조절하면 각각의 용액 속 mRNA와 이온화 지질의 양이 조절되므로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균일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③ mRNA가 녹은 산성 용액과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혼합되면 pH가 높아져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되므로 음전하를 띤 mRNA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④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이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아져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화된다.

20. [출제의도] 글의 생략된 정보를 파악한다.

이온화 지질에 둘러싸인 mRNA가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안으로 함입되면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며, 세포질 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된다. 엔도솜 내부의 pH가 낮아지면 수소 이온을 많이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띤게 되며, 그 결과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이때 엔도솜 막은 세포막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음전하를 띤 인

산기가 양이온화된 지질과 결합한다. 즉 엔도솜 막의 인산기와 양이온화된 이온화 지질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mRNA를 둘러싼 엔도솜 막이 붕괴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엔도솜 내부의 pH가 낮아지면 지질 나노 입자가 양이온화되므로 음전하를 띤 mRNA 사이에 전기적인 반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되면 내포 작용으로 세포질에 함입된 세포막이 세포 표면으로 방출된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④ mRNA는 음전하를 띠며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되더라도 이온화의 정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⑤ 엔도솜 내부의 pH 변화로 엔도솜 막이 산성화된다는 내용에 따라 체내 효소에 의한 엔도솜 분해 작용이 나타난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21 ~ 25] (사회) 송덕수, 「신 민법강의」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뒤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종료된 임차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가 체결되었을 때 관할 법원이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는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하는 계약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은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전세권은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는 권리는 아니다. 소유권은 물권의 다른 종류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임대차에 내용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한다. 1문단에 따르면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보증금의 기준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새로운 물권이 생긴다면 임차권은 해당 물권보다 후순위 가 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임대차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종료된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물권적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을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되고 물권적 효력이 유지된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임대차는 2023년 2월 4일에 종료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2023년 2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신청 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갑에게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③ 을은 계약 기간 내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지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임차권이 존재한 상태에서도 주택의 소유권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임대차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갑은 A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의 이유를 추론한다.

4문단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로 발생하는 물권적 효력에는 앞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최우선변제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내용을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하면 원래의 임차권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더라도 권리 간의 순위를 따지는 것일 뿐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26 ~ 30] (인문) 윤미애, 「발터 벤야민과 도시산책자의 사유」

이 글은 실내에 대한 짐멜과 베냐민의 견해를 비교하고 신건축과 관련하여 베냐민의 공간관을 설명한 글이다. 짐멜은 실내가 개인의 내면을 지키고 개성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반면 베냐민은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전락한 실내를 비판하며 다양한 양식의 조합으로 장식한 실내의 심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베냐민은 거리와 실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파사주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고립되고 개인화된 주거 공간을 극복하고자 한 신건축의 구성 원리 및 미학에 공감하면

서, 베냐민은 파사주에서 실내에 집착했던 19세기에 서 개방성과 투명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이행 중인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2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실내에 대한 짐멜과 베냐민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 그들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은 도시에서의 불안과 물개성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욕구는 내면으로의 침잠으로 나타나며, 실내의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자 개성 표현의 공간이라고 본 짐멜의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3문단을 보면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하는 주거 문화는 도시에서의 비인격화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내를 현실 도피의 공간이자 거주자가 환상에 빠지게 하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어 짐멜과 상이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건축의 구성 원리를 도출한 신건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주거 문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대비하고 있으며 사적 공간은 글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적 공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1문단을 통해 주거와 여가가 모두 사적 공간에 해당 하는 성격이라고 파악할 수 있으며, 2문단을 보면 짐멜은 다양한 양식의 사물을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조합하여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 일상의 심미화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실내에 대한 짐멜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짐멜은 개인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 실내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고자 한다고 보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짐멜은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실내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짐멜은 실내를 장식할 때 사용하는 공예품에 대해서,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을 통해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짐멜은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개인은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빠지게 되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개인의 은신처로서의 실내 개념으로 이어진다.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5문단을 보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베냐민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사주가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지어진 공간이라는 서술은 베냐민의 관점에서 본 파사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파사주는 상품을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유행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② 파사주는 구조적으로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소비 심리를 충동하게끔 지어진 공간이다. ③ 파사주에서는 거리와 실내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며 이는 두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⑤ 파사주는 실내 집거의 시대인 19세기에서 공간 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시대인 20세기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29.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2문단을 보면, 짐멜은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욕망을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물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따

라서 벽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로 설계된 신건축의 건축물인 ㉔를 짐멜이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을 보면, 베냐민은 실내에서의 은둔은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짐멜은 외부와 차단된 실내를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보면, 짐멜은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을 보면,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으며 신건축에서는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를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냐민의 관점에서 보면,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을 설계하여 외부로 향해 개방되도록 지어진 신건축의 건축물인 ㉔를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밑줄 친 ㉔에서 ‘빠지다’는 ‘근란한 처지에 놓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택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은 ㉔이다.

[31~34] (갈래 복합) (가) 박인로, ‘노계가’ / (나) 이태준, ‘자연과 문헌’

(가) 박인로, ‘노계가’

이 글은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작가 박인로가 말년에 비로소 은거지를 개척하여, 은거지인 노계의 경치를 찬미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태평성대에 강호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유교적 충심을 바탕으로 태평성대가 영속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소망을 하늘에 기원하고 있다.

(나) 이태준, ‘자연과 문헌’

이 글은 이태준이 1941년 발표한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된 수필이다. 당시의 예술가들이 문헌이나 기록 등 부차적인 것에 얽매어 자연이 지닌 생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고유한 직관을 통해 자연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임을 역설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소서’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 태평성대를 갈망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 예술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는 모두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가)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와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의 대조, ‘본래의 금강산’과 ‘소문거리의 ‘모텔’ 또는 ‘계산된 삽화’로서의 금강산의 대조 등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등 시선의 이동을 통해 ‘꽃피는 시절’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는 부분을 지니고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허송하지 말리라’와 같이 의지적 어조를 활용하여,

꽃피는 시절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푸른 색채 이미지를 통해 ‘물’과 ‘하늘’이 ‘한빛’으로 통합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② ‘바위 위 산꽃’과 ‘시냇가 버들’을 각각 ‘수놓은 병풍’과 ‘초록 장막’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병풍이나 장막 등 일상의 사물들이 갖는 쓰임에 주목하여,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 ‘돼지고기’, ‘사슴고기’ 등의 식재료를 풍부하게 나열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복숭아꽃’을 ‘붉은 비’로 빗대어 화자에게 뿌린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물의 붉은 색채 이미지가 화자의 취향 얼굴로 이어지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화자의 풍류를 강조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나)에서 ‘옥녀봉’, ‘명경대’와 같은 이름은 최근에 와서야 인간들이 붙인 이름으로, 자연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다는, 과거의 기록에 의존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좁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옥녀봉’, ‘명경대’와 같은 이름은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찰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라는 구절에서 ‘물가’와 ‘갈매기’는 모두 강호를 이루는 자연물로서 이 행에서는 강호를 이루는 자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화로운 광경이 지속됨을 그려내고 있다. ② (가)에서 ‘무회씨 때 사람’, ‘갈천씨 때 백성’은 모두 태평성대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한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태평성대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이 그때만큼이나 태평성대에 가깝다는 뜻이며, 영속적인 가치인 평화로운 삶에 대한 작자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전란을 체험한 작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에게 직접적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빌고 있다. 전란이라는 일시적인 요소가 태평성대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자의 인식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소문거리의 ‘모텔’과 ‘계산된 삽화’를 양산하는 ‘문헌’은 자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기록들을 뜻한다. 작가는 ‘문헌’에 ‘시인’들이 수족이 묶인다고 표현하며, 자연의 영속적 본질에 대한 접근에 ‘문헌’이 방해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나)의 ‘자연에 대한 인류 최고의 능력은 직감이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라는 진술을 통해,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직관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캐어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자연에게 있어 문헌이란 별무가치인 것’이라는 진술을 고려할 때, 여러 기록을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경승지를 대상으로 한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자연에게 있어 문헌이란 별무가치인 것’이라는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도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라는 진술을 고려할 때,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내력을 소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5~38] (현대소설) 조해일, ‘매일 죽는 사람’

이 작품은 죽는 연기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역 전문 배우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죽는 배역을 맡아 3백 원을 벌지만 이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죽는 연기를 하며 피곤한 상황에서도 야간 촬영을 나간다. 이렇게 죽음의 연기를 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제 죽음의 그림자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은 죽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삶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한다.

35.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여러 인물의 회상을 교차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닌 인물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⑤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버스에 오른 ‘그’는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이는 분명치 않았으며 여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오답풀이] ① 신장균 역을 맡은 배우는 베는 시늉만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신장균 역의 배우가 ‘그’를 실제로 가졌었다고 느꼈다. ② ‘그’는 첫 번째 촬영을 마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쳤음에도 최씨의 야간 촬영 제안을 받아들였다. ③ 두 번째 촬영에서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아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④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수중에는 차비를 지불하고 남은 일금 5백 90원이 들어 있었고, ‘그’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느꼈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그’가 청각으로만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인물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촬영이 진행되는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3백 원짜리 포졸들이 의상이 아닌 냅마를 걸친 채 폴 배드 베어 넘겨지는 모습을 묘사하여 이들이 맡은 배역이 보잘것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칼에 맞아 죽는 연기를 하기 위해 달려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의 절박한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⑤ ‘그’가 주변을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통해 흐리멍덩한 의식에 빠져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죽는 척하고 쓰러진 ‘그’가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 3백 년 전의 포졸의 속삭임을 듣는 것은 죽음의 연기를 하다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지 삶의 과정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3백 원을 받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죽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의 모습은 죽는 역할을 맡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버스에서 내려 입관 직전의 사자를 떠올리며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삶을 죽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을 죽음의 발로, 구두가 신겨져 있는 발을 생명의 발로 생각한 ‘그’의 모습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⑤ 장의 불빛과 갇힌 골목 가게들의 불 중에서 식욕점

의 불그레한 불빛을 발견한 것은 '그'가 아내 뱃속의 태아를 죽음의 상태에서 규정하던 것을 벗어나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생에 대한 감각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39~42] (고전소설) 김시습,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이생과 최씨의 사랑 이야기는 이생이 최씨 집의 담장 안을 엿보면서 시작된다. 이들의 만남과 이별은 구조적으로 번주되는데, 그중 두 번의 만남과 이별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만남과 이별은 초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만남과 이별 구조는 이생과 최씨의 지극한 사랑과 절의라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3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라는 부분을 통해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이 최씨 가문에 비해 한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씨 집안에서 이생을 불러 그에게 혼인 의사를 묻자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최씨가 향아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이생의 일을 물어보게 하였으며,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부분을 통해 향아가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듣고 최씨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생의 화답시를 발견한 최씨 부모가 최씨에게 이생이 누군지 묻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며 이생과의 만남을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최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며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시간 표지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최씨가 초채해지는 것은 이생의 소식을 듣고 병을 얻게 된 '매일 저녁' 이후의 일이므로, 최씨가 초채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최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를 통해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내고, 이는 이생 부친이 이생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생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짐으로써 개연성을 부여한다. ② 이생이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임을 특정하면서, '인연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생 부친의 뜻과는 이생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③ 앞에 제시된 '작은 일이 아니로다.'를 통해 '지금 당장'에 이생 부친의 단호함이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동안 반복된 이생과 최씨의 만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⑤ 이생이 돌아오지 않는 기간을 제시하여 최씨와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최씨가 느끼는 이생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에 드러난 특징을 비교한다.

[A]에서는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 [B]에서는 '어찌 끝내 언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를 통해 모두 이생의 앞날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잠시 바람'이 났다며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은 언급하지만 상대를 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B]에서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③ [A]에서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④ [A]에서 혼인 성사 시 이생 부친이 입게 될 손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우려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B]

에서 혼인 성사 시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서 이생에 대한 이생 부친 자신의 주관적 평가만 드러날 뿐, 평판은 드러나지 않으며 상대에게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B]에서 이생 부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최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한 것은 사랑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기며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최씨는 현재 규범적 질서가 구축된 담장의 외부에 있는 이생과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을 수 있는 담장의 내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제약의 상황을 타개한다. 따라서 최씨가 옛말을 언급하며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생은 최씨와의 사랑이 '옛 성인의 말씀'이나 '자식된 도리'와 같은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최씨와 계속 같이 있지 못하고 담을 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② 이생 부친은 최씨와 만난 이생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며 '남들의 '책망'을 걱정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이생이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모습과, 이생과의 이별로 병을 얻게 된 최씨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한 둘의 사랑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⑤ <보기>에 따르면 최씨가 언급한 '소원'은 이생과의 만남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는 범위 안으로 이생과의 사랑을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3~45] (현대시) (가) 윤동주, '소년', (나) 김기택, '봄날'

(가) 윤동주, '소년'

이 글은 하늘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을 연쇄적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년은 하늘을 바라보며 파란 물감이 드는데, 이 물감은 눈썹-손바닥-손금을 거쳐 맑은 강물이 되어 소년의 마음속에 흐른다. 이때, 순이의 얼굴은 소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나) 김기택, '봄날'

이 글은 겨울 끝에 온 봄별을 한가롭게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을 봄별만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시에서 할머니들은 봄별에 그들의 주름살, 뼈와 관절, 마른버짐을 한껏 널어놓는데, 어느덧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몸만 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다. 이 시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그들이 눈부시게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는 '떨어진다', '든다', '묻어난다'와 같은 시어에서 현재형 어미 '-는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년에게 가을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물감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양껏 받는다', '홀긴다', '웃는다'와 같은 시어에서 현재형 어미 '-는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봄별에 햇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는 '하늘'의 '파란 물감'이 '눈썹'을 거쳐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손금'으로 이어져 '맑은 강물'이 되는 연쇄법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연쇄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슬픈 가을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는 '노곤노곤'이

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봄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다양한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다. ④ (가)와 (나)에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에는 '여기저기서'에서 '여기', '저기'라는 지시어가 쓰였고, (나)에는 '이렇게', '그새'에서 각각 '이'와 '그'라는 지시어가 들어간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지시어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대상에 주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하늘'의 '파란 물감'이 소년에게 물든 것은 소년과 하늘이 연결됨을 보여 주는 단서이다. (가)에서 소년이 황홀함을 느끼는 것은 맑은 강물을 통해 '순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소년이 '따뜻한 볼'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파란 물감'이 물든 것은 맞지만, 이 행동이 황홀함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자연물인 '하늘'의 파란 속성은 소년의 눈썹을 파랗게 만드는 것처럼 제시되어, 소년의 몸에 영향을 주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하늘'에서 물어온 '파란 물감'이 소년의 '손바닥'에 묻고, 그 '손바닥'의 '손금'이 '맑은 강물'이 변한 것은, '파란 물감'이 '맑은 강물'로 변용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소년이 '맑은 강물'에서 '순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주체의 내면이 표면화되는 것인데 강물에서 순이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강물의 '맑은' 속성과 조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소년이 본 '맑은 강물'은 소년의 내면이며, 그 내면에 떠오른 순이는 내면 속 대상이다. 이때 눈을 뜨고 '맑은 강물'을 보며 '순이'를 마주하게 된 소년이 '눈을 감'아도 순이가 떠오른다는 것은 순이가 내면에 자리 잡은 대상임을 보여 준다.

4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C]에서 화자는 압도적으로 내리쬐는 봄별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서 빛을 받는다고 표현하며 할머니들이 모두 눈부시게 뒀을 발견하고 있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은 할머니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일 뿐,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는 표현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뽀뽀하게 햇별을 채워넣'는 것은 '햇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할머니들이 봄별을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B]는 봄별을 쪼이는 할머니들의 변화를 화자가 상상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할머니들이 봄별을 쪼이는 모습을 보며 마른버짐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서 현재 할머니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뽀얀 질살'까지 오를 것 같다고 하고 있다. '잘만 하면'에서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난다. ④ [D]에서 화자는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 모습은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로 보아 화자는 나무의 변화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E]는 화자가 봄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입장을 추측해 본 것이다. 화자는 '가끔 눈을 비비'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보고, 봄별의 '환한 빛'에 할머니들이 주목한 것은 할머니들이 자신의 한평생에서 봄별을 쪼이는 지금처럼 만족스러웠던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